주가	환율	금리
+0.21	+5.10	+0.02
1,431.15 (코스피지수)	945.10원 (원/달러)	4.90%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89.21	(-6.49)
다우(24일)	11,336.32	(-11.13)
나스닥(24일)	2,333.38	(-9.48)
닛케이	16,970.29	(+55.89)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4.68엔	(-0.06)
유로 달러 환율	1.2384달러	(+0.12)
3년만기 회사채	5.17%	(+0.02)
콜금리	3.96%	(-0.01)

광주·전남 수출업체 751개사중 10개사 '환변동보험' 가입

환율 급락 '직격탄'

중기청·무협 등 밀착상담 비상지원체제 돌입

광주·전남지역 수출업체들이 고유가·고금리에다 환율급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대다수 중소수출업체들의 경우 25일 현재 원·달러환율이 945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 가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변동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수출채산성 악화와 수출감소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환율피해 급증**=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에 따르면 지역내 751개 수출업체 가운데 겨우 10개 업체만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업체는 9개로 청약금액은 179억원, 대기업은 1개로 68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업체는 수출거래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혈수출'을 마다않고 있는가 하면, 아예 수출을 포기한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장순호 광주·전남중기청장은 "환변동보험에 대한 홍보부족도 있지만,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데다 경영진이나 실무진들이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수출중소업체 지원**=광주·전남중기청을 비롯, 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수출보험공사 등 수출관련기관들은 환율피해 밀착상담에 돌입했다.

중기청은 광주권(5월11일·광주전남중기청)·동남권(7월13일·광양시청)·서남권(10월19일·목포시청) 등 권역별로 환리스크 관련정보 제공과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홍보에서는 환변동보험이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헤지 가능 ▲보험료 이외에 부대비용 전무 ▲자유로운 조기결제 실시로 환수위험 최소화 등 특장이 있다는 점을 중소업체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김규오 전문위원은 "청약일 최초고시환율 1달러당 1천원, 청약금액 100만달러, 가입기간 3개월, 수출자등급 C등급을 가정할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는 대기업의 25.5%인 1천20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고스란히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수출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요율을 0.05%에서 0.02%를 낮춰 적용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올 말까지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 전국 700억원에서 735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은 수출중소업체에 대한 대출통화 전환옵션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환변동보험= 수출기업의 환율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2000년 2월 도입한 제도. 미리 약정한 환율보다 환율이 내리면 공사가 손실을 기업에 보상하고, 환율이 오르면 공사가 차익을 갖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

aT, 농산물수출 확대 9억 지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신광수)는 농산물(신선·가공) 및 임산물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유망품목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선농산물 10품목, 가공식품 15품목이다. 지원규모는 품목당 4천만원씩 모두 9억3천600만원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광수지사장은 "aT는 작년에 신선농산물 7품목, 가공식품 20품목에 5억9천600만원을 지원, 550만불을 수출했다"면서 "올해부터 다수 상품개발 방식에서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이 큰 품목을 개발·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있는 수출업체는 aT홈페이지 (http : //www.at.or.kr 공지사항)를 참조하고, aT광주전남지사(수출유통팀 062-944-4747)로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KT&G 월드컵 선전 기원 '아리랑' 출시

KT&G는 오는 6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의 축구제전 '2006 독일 월드컵'을 맞아 태극전사의 선전을 기원하고, 대한민국의 단합과 도전정신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정판 '아리랑' 제품을 출시한다.

한정판 아리랑의 공식 명칭은 '아리랑 Soccer Edition(약칭 '아리랑SE')'이며, 25일부터 월드컵 기간까지 약 2개월 동안 공급된다.

'아리랑SE'는 기존 아리랑과 내용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산소강화필터를 사용해 부드러운 맛은 그대로 유지하되, 담뱃갑 앞면에는 축구선수들의 역동적인 10가지의 경기모습을, 뒷면에는 국민들의 열띤 응원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새롭게 담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州日報社·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주)포에프

저출력 송수신 교통신호등 원격 제어 개발

유럽·호주서 호평…100만달러 수주 '눈앞'

'4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이문호 대표(가운데)가 백인호 광주일보 사장(왼쪽), 장순호 광주·전남중기청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향후 혁신적인 첨단신호등과 디자인 개발 등 연구개발(R&D)에 집중투자, 전국 최고의 업체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25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한 '4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주)포에프(북구 월출동) 이문호(44) 대표는 "아울러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하고 대외신인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998년 전기설계·감리업으로 출발했다가 2002년 LED 교통신호등 제조업으로 전환한 포에프는 이듬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신기술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04년 기술혁신형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후 '저출력 송수신장치를 이용한 무선클로닝 방식에 의한 가로등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또 2005년에는 중기청의 공정혁신개발사업에 참여, 생산원가 절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포에프는 2004년부터 중기청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와 동남아 시장개척단에 참가, 높은 상담실적으로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유럽·호주 바이어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100만불의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베트남 현지공장을 설립,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명의 직원을 거느린 포에프는 특허 2건과 실용신안 5건을 등록한 상태로 매출액은 2004년 16억700만원, 2005년 26억8천300만원에서 올해 광주·전남시장의 80%인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순천대·농촌진흥청 '친환경바이오' 심포지엄

순천대와 농촌진흥청, 친환경바이오사업단이 26~28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친환경바이오산업의 비전과 전망'에 관한 제1회 공동심포지엄과 산업전시회를 갖는다.

26일에는 친환경바이오사업단 지역봉사단 발대식, 학부모 초청 누리사업 설명회가 펼쳐진다.

또 27일에는 산학협력 취업자문위원회 모임과 공동 심포지엄이 열리며, 28일에는 산업전시회와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순천대 등 3개 기관은 지난해부터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지역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다양한 장학지도, 취업알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지 임대수탁 지속 증가

농촌공사 전남본부 599건 접수

374건 213ha 임대차 계약 완료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면적이 매달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이후 올 4월 18일 현재까지 599건이 접수돼 374건, 213.2ha가 임대차 계약완료 됐다.

계약체결된 농지별로는 논이 109ha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밭 72ha(34%), 기타 토지가 32ha(15%)이다.

월별로는 시행 첫달인 지난해 11월 2.1ha를 시작으로, 올해들어 2월 40.6ha, 3월 88.5ha 등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농지를 맡긴 사람 중 광주·전남 거주자는 32%(68ha)에 불과한 반면, 타 지역거주자는 68%(145ha)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임대수탁 사업이 지주와 농업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임을 공감하면서 부재지주 들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또는 상속·이농으로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光銀 어린이날 그림대회

내달 5일 비엔날레 광장서

광주은행은 '제5회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대회'를 다음달 5일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회 당일 개최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상자는 다음달 22일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발표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